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2020.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 유 사 원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유사원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

공동책임

이정희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공재민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협력연구원)

김아라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주임연구원)

보조연구

최준미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주임연구원)

신아름 ((주)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객원연구원)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결과보고서

I. 서론	1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목적	3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II. 예술의 가치, 사회적 가치 개괄	7
1절.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정의	9
1. 용어의 정의	9
2. 용어의 활용	0
2절. 예술의 가치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술적 선행연구 ...	1
1. 예술의 가치에 관한 연구의 흐름	1 1
2.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2 1
3. 예술의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4 1
3절. 기타 정책현장에서의 논의	7 1
1. 공공 영역	7
2. 민간 영역	0

III. 예술의 가치 측정 지표	1· 2
1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활동의 예	5· 2
1. 국외	25
2. 국내	29
2절. 예술활동의 가치 측정 방법	5· 3
1. 예술활동의 가치 측정 지표	5· 3
3절. <신나는 예술여행>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0· 4
1.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개요	0· 4
2. <신나는 예술여행> 평가지표 및 방식	3· 4
3. <신나는 예술여행> 현행 평가지표의 보완점	5· 4
IV.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언	7· 4
1. 사회적 아젠다로의 전환	9· 4
2. 순회사업의 개편	05
3. 평가지표의 혁신적 전환 필요	0· 5
참고문헌	5



<표 차례>

<표 1-1> 연구방법	5
<표 3-1> 대상에 따른 영향 지표 추출	8... 3
<표 3-2> 예술의 가치 중 평가가능한 속성	8... 3
<표 3-3>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매칭 프로그램 유형	0... 4
<표 3-4>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 유형	1... 4
<표 3-5> 신나는 예술여행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 지역구분	2... 4
<표 3-6> 신나는 예술여행 현장 평가 지표	3... 4
<표 3-7> 신나는 예술여행 현장 평가 지표	6... 4

[그림 차례]

[그림 2-1] 예술의 본원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관계	1... 2
[그림 3-1] 엘 시스템아(El Sistema)	5... 2
[그림 2> 독일 피나 바우쉬 재단-용 운트 라우트, 넬켈라인 프로젝트]	7... 2
[그림 3] 일본 나오시마 ‘예술의 섬’	8... 2
[그림 4] 서울예술치유허브	0... 3
[그림 5] 사회적기업 앨리스와 토끼	1... 3
[그림 6]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1... 3
[그림 7] 깡깡이예술마을	3... 3
[그림 8] 제주문화재단-빈집 프로젝트	4... 3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I

서론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근대 이후, 국가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이야기 할 때에 문화예술의 본질적/내재적 가치와 도구적/외부적 가치는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 예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가 왜 예술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이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예술의 가치’라는 것이 예술가의 활동 중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예술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의 설립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예술이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기 위함임. 따라서 이 연구는 아르코가 주목하고 있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지, 더불어 예술의 가치는 어떻게 해석·평가·확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임
- 예술이 가진 다양한 가치들이 어떤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내·외 예시를 통해 확인하고, 예술활동이 드러내는 가치 확산의 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아르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에 대입해 보고자 함
 - 이는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과 방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 향후 아르코의 전체 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예술의 가치 확산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음



-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 예술의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 할 수 있을 것인가
- 도출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토대로 아르코의 대표적 예술가치 확산 사업인 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을 평가한다면 어떤 지표들이 보완·수정되어야 하는가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며, 특히 예술의 가치 확산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해외 자료를 주로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시간적 범위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발간된 자료를 살피고자 함
 - 예시로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사업 평가기준과 선정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

나. 대상적 범위

- 그동안 서구에서 예술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고, 예술의 가치에서 파생된 주요 개념인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파악함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예술가들의 활동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제안함
- 추출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의 예시를 살핌
- 아르코 <신나는 예술여행> 현행 사업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신나는 예술여행>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용어 정의
- 예술의 가치에 대한 기존 담론 분석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 제시
 -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측정 도구 소개



○ 예술가치 확산에 포용가능한 예술활동의 스펙트럼

- 예술의 사회적 가치활동의 예시

2. 연구방법

○ 문헌 검토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용어 정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문헌 검토
-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스펙트럼 분석

○ 신나는 예술여행 사례 검토

-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그 내용과 방법을 공유

<표 1-1> 연구방법

구분	주요내용
문헌조사	- 예술의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문헌 검토·분석
전문가 자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와의 정례 회의를 통해서 소위원회에서 지향하는 가치 확산에 대한 내용 공유
인터뷰 및 FGI	- 신나는 예술여행 참여 단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

II

예술의 가치, 사회적 가치
개괄



1절.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정의

1. 용어의 정의

가. 예술

- 예술은 사전적인 의미로 “미적(美的)인 작품을 형성시키는 창조 활동을 의미”함¹⁾
 - 예술이라는 단어는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도 함. 미학적 원칙에 따라 아름답고 매력적이거나 평범한 의미 이상의 것의 생산,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²⁾
- 본디 예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art(영어), techne(그리스어), ars(라틴어), kunst(독일어), art(프랑스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였음
- 예술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³⁾

나. 가치

- 가치라는 단어는 “주관이나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⁴⁾, 이는 “사물이나 행동 목표 등에 내포되어 있거나 주어진다고 생각되는 쓸모 있거나 바람직하거나 소망스러운 것”을 의미함⁵⁾
- 가치의 개념은 좋음(the good)과 옳음(the right)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좋음은 바라는 것(desire)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옳음은 바람직한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⁶⁾
- 가치가 가진 또 다른 의미는 가치는 물체나 사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이며, 예술과 관련해서 ‘가치’는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1) 네이버 두산대백과사전. “예술” 검색(검색일 2019년 12월 13일)

2) Dictionary.com “arts” 검색(검색일 2019년 12월 13일)

3) 김정수(2017). 『문화행정론』, 집문당. 12쪽.

4) 네이버 두산대백과사전. “가치” 검색(검색일 2019년 12월 13일)

5)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검색일 2019년 12월 13일)

6) 이종수(2008).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14쪽.



‘이익’과 ‘영향’의 개념과 관련이 있음⁷⁾

- 즉, 예술은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치는 바람직하거나 소망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가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바람직하거나 소망하여 자신의 주관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음

2. 용어의 활용

- 예술의 가치라는 용어는 한국어로는 예술의 가치로 단순히 표현되지만, 영어로는 ‘arts value’, ‘value of the ar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예술의 가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value of the arts라 볼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value of the arts는 예술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추구하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예술의 가치라는 용어와 예술적 가치라는 용어가 혼재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술적 가치는 미적 가치, 인지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해석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의 복합적 의미를 뜻함
- 즉,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가치를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예술적 가치는 이러한 예술의 가치 속 일부로서 예술의 가치를 구성하는 다른 여타의 가치들이 혼재되어서 드러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음

7) ACE(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 of Cultural Experiences.



2절. 예술의 가치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1. 예술의 가치에 관한 연구의 흐름

- 예술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은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음
- 중세시대에는 다양한 예술장르의 기초가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며, 더불어 예술이 유의미한 인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함. 즉, ‘순수예술’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인식이 세워졌던 시기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18세기 신분사회의 붕괴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민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술을 자기 취향의 반영이라 생각하여 예술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됨. 이들에게 예술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도구로 유용했던 것임
- 예술이 산업적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19세기 중반 즈음에는 예술작품을 통한 자본축적이 가능하게 되어, 예술이 가진 시장적 가치가 확대되고 공고해지기 시작함
- 그러나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며,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예술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음.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예술이 가지고 있던 계급적 속성을 삭제하고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창출 대신 사회적 변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함. 이 시대의 예술의 가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세기 들어서면서 대중예술이 등장하였고, 대중예술은 기존의 순수예술로 불리던 개별적 예술장르의 가치와 충돌하고 결합하는 행위가 나타났음. 그러나 여전히 순수예술 자체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는 학자도 있었음
- 최근의 예술 가치에 대한 논의는 근대까지의 기존 논의만으로는 예술행위의 가치를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 가치에 대한 새로운 범주설정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영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예술은 인간의 본성”이라 말하며, 인간의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읊고,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벽이나 농기구 같은



곳에 이미지를 새기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⁸⁾

-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으로 구분되어지나, 기본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거나 즉흥적인, 그리고 모호하기도 하며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오한 인간의 표현방식이라고 불려진다고 함
- 예술은 인간의 다른 어떤 공헌보다 가장 심오한 인류의 유산이며, “살아있는 우리들이 남기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작곡가 아론 코플란드가 말한 바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다른 시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임⁹⁾
- 예술은 우리가 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함. 지식은 미를 언어로, 소리로, 형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 J. 폴 게티 재단의 해롤드 윌리엄스는 “예술은 우리 문화의 기초이며 틀이다”라고 강조하며, 인간사회에서 예술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예술은 어둡고 공허한 영혼들을 채우는 양식이라고 말하였음¹⁰⁾
- 랭커스터 대학 존 러스킨 연구소의 로버트 헤위슨은 예술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 예술 자체가 가진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함. 즉, 모차르트의 음악이 잘츠부르크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 피카소의 위대함이 빌바오에 전시되어 스페인을 관광으로 유명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미술적 시각과 작품에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¹¹⁾
-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써 진행되었음. 특히 창작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향유자 중심으로의 이동이나,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공공예술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 1997년에 발간된 예술인문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자료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막대

8) 엘리자베스 머피(1997). 『예술의 가치』. 예술인문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9) 전개서. 5-6쪽.

10) 전개서. 6쪽.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2-93쪽.



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무시되거나 의문시되는 사회에 예술이 그동안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

- 실용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예술이라는 장르는 과학적·기술적인 측면에 비해 그 효용성이 낮았기 때문에 교과과목에서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런 것이 정당화되던 때가 있었음
- 그러나 교육, 시민생활, 국제문제,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예술이 가진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술의 가치가 실질적인 효용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 영국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에서도 수단으로서의 예술 또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동안 예술의 가치, 예술의 효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측정의 방식과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
- 예술이 개인의 차원과 단체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헌과 사례를 통해서 살펴봄에 이를 다시 경제적, 사회적, 공적 이익과 영향의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함
- 그러나 예술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예술이 여러 분야의 활동에 활용되어 예술을 통해 어떠한 가치가 발현이 되고 확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술의 가치 연구나 논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쟁은 줄곧 예술의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관계 중 이념적인 부분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예술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과 관심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함¹²⁾
-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논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함
- 특히 예술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효과 검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측정과 평가는 결국 문화예술이 가진 본질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쪽.



- 적 가치를 드러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함
- 특히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술이 가진 그 핵심적인 가치는 화폐와 같은 시장가치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술 그 자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¹³⁾**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예술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계량적 측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모델들이 개발된 바 있음
 - 조건부 시장가치 평가법 흔히 CVM(Contingent Valuating Method)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임.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도 하며, 국가 이미지 형성 또는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함¹⁴⁾
 -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비시장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과학과 계량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예술의 가치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 1) SIAP(1994). Individu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rts Groups: A Quantitative Analysis of Philadelphia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는 1994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른 프로젝트로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예술활동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13) P. Brandwein(1985). *The Arts: Education for Leadership*.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1쪽.



한 연구임

- SIAP의 연구보고서는 예술이 가진 비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1992년에 수행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예술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음
- 개인을 둘러싼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전통적인 변수로 여겨졌던 사회적·경제적 변수보다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술에 대한 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소득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도시가 가진 문화예술 환경 간의 관계에서 예술이 가진 역할이 보다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고서라 할 수 있음

2) NEA(2012). How Art Works

- NEA는 예술의 기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How Art Works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 이 연구는 2012-2016년까지 NEA의 전략계획의 목표였으며, 연구의 초안이 연간계획에 등장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미국 예술 생태계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예술의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며, 광범위한 분야와 사람들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임
- 이 연구는 예술 분야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예술의 작동방식이나 영향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언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설명하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system map)를 제공함. NEA의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예술활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이 연구는 예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3) ACE(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 이 보고서는 (문화)예술활동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을 받거나 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로 '개인적 영향'을 사용하는데, 즐거움, 감정적 심취, 학습, 창의적 자극, 소속감, 사회적 유대 강화, 웰빙 증진 등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포함함



-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가지 연구 접근법을 활용하는데, ① 생리적·정신적 연구, ② 사후 설문조사, ③ 사후 질적 조사, ④ 영향력이 강한 사건의 회고적 인지가 그것임
- 연구 접근법은 모두 예술활동 즉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미술관·박물관에 가서 감상하는 행위, 디지털로 전환된 작품을 감상하는 등의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측정한 결과를 다룸

4) AHRC(2016).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 Culture

- AHRC는 2012년에 어떠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이러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문화적 가치 프로젝트 (Cultural Value Project)를 시행함
- 생활예술 참여, 대중예술 활동, 생활예술이나 대중예술 관람행위, 집에서의 문화예술 경험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문화 포함) 경험을 토대로 관람객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가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
- 개인으로의 영향, 시민단체 & 시민연계 활동, 공동체 공간의 재건, 영향혁신생태계의 경제학, 건강·노화·웰빙에서의 영향, 예술교육의 중요성 등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민들과 활동 연계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정리하였음
- AHRC의 보고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연구할 때 어느 범위의 활동까지를 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5) 양혜원·김현경·윤지연(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 이 보고서는 예술이 지닌 가치는 무엇이고 예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에서 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
-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예술의 가치라는 개념에 대하여 역사적,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예술의 가치를 논의할 때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또한 예술의 가치라는 범주 안에서 도구적 방식으로 예술이 활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관점과 분석틀, 유형 등을 분리하여 살펴보고 있음



-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차원을 확인하는 변수로 ① 건강, 웰빙, 인지능력, ② 노화 및 고령자, ③ 교육적 성취, 사회 인지적 발전, ④ 경험 중에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과 생체데이터 활용, ⑤ 문화예술 참여 이후 주관적이고 회고적인 경험 데이터 포착, ⑥ 사후에 정성평가 수행, ⑦ 영향력 있는 사건에 대한 회고적 평가 수행, ⑧ 종단적 영향 평가가 있음
- 공동체/사회에 미치는 영향 변수는 ① 사회적 포용, 시민의식, ② 혁신, ③ 사회적 비용 절감, ④ 사회적 영향, ⑤ 농촌지역 및 기업 혁신, ⑥ 청소년 범죄율, ⑦ 사회적 자본, ⑧ 범죄, ⑨ 시민행동이 있음
- 국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로는 ① 매출액, 고용, ② 고용, ③ 매출액, 수출, 고용, ④ 매출액, 지출액, 세수, 고용, ⑤ 고용, 방문객 수, 지출/수입액, ⑥ 고용, 매출액, 지출액, ⑦ 고용, 매출액, ⑧ 고용 기업수, 매출액, ⑨ 국가경제, ⑩ 경제적 파급효과, ⑪ 지역경제, ⑫ 예술가와 경제, ⑬ 공공지출, ⑭ 경제발전, ⑮ 지역경제발전이 해당됨



2절. 예술활동의 가치 측정 방법

1. 예술활동의 가치 측정 지표

- 예술의 가치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어 나타난 결과, 즉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 예술의 가치 측정을 위해서 활용한 방법론에 의하면 예술의 영향을 본질적/도구적 영향으로 구분하거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술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향은 매우 다층적으로 작용함. 이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 등 사람이나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분야를 막론한다고 할 수 있음. 심리적 지표는 주로 개인, 공동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많이 발견됨. 사회적 측면 역시 국가의 고용창출, 문화산업, 지역경제 등의 지표는 경제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다음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등장하는 개념 및 정의는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연구되었던 다양한 보고서 및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1) 심리적 측면

- 예술의 가치 중 심리적 측면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비계량적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렵지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주로 개인과 관련된 조사는 개인적 차원에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변화를 다루는 경향이 높음(박신의, 2013)
 - 몰입, 매혹, 자극: 예술경험에 있어 몰입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술 경험의 영향임을 암시하며(Brown&Novak, 2013) 느낌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은 관객의 예술 참여 수준을 나타냄
 - 공명, 공감: 예술활동을 경험한 후 개인적 감정적 연결을 느끼거나 강력한 반응 또는 유대감을 느껴 예술활동 또는 작품에 심취하게 되어 개인의 심리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함(Bakhshi et al, 2010; Brown&Novak, 2007; Brown&Ratzkin, 2012; Brown&Novak-Leonard, 2013)



- 학습, 도전: 예술은 학습과 사고의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정보의 수집·획득과 관련이 있으며, 예술을 통해 새로이 인지된 아이디어, 정보들에 대해 유발되어 개인의 학습과 도전에 영향을 미침(Brown&Novak, 2013)
- 건강, 웰빙: 예술에의 참여가 개인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여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더불어 환자들의 경우 의사전달 능력이 향상된다던가, 사회생활 활성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Ryan&Deci, 20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미적 성장, 발전, 자극: 새로운 유형의 예술작품을 경험한 후 예술을 통해 다양한 창의적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경험은 개인에게 미적 규범에 대한 성장과 미래의 개념의 확장, 그리고 예술이라는 장르를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되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Brown&Novak, 2007; Brown&Ratzkin, 2012; Brown&Novak-Leonar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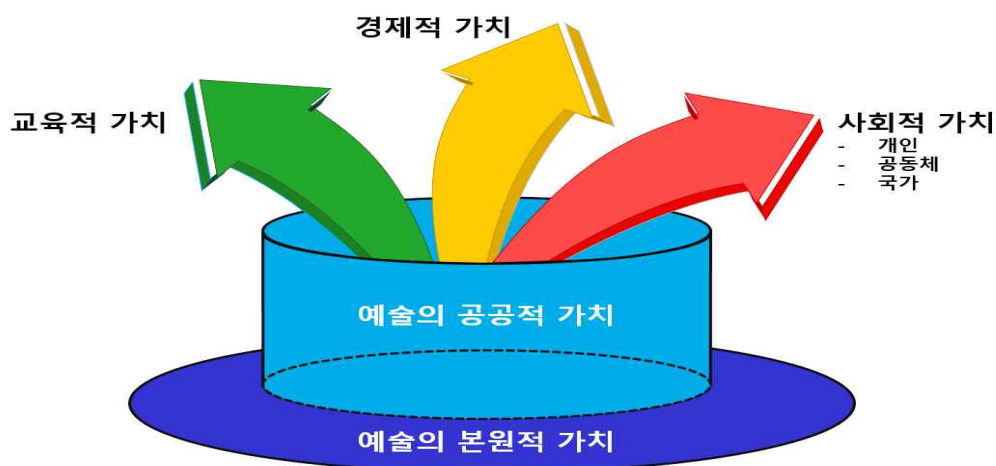
2) 사회적 측면

-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공동체 및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사회적 측면은 주로 사회에 속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함
- 사회적 유대감, 연결, 판단: 예술활동의 경험은 집단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Bakhshi et al, 2010; Brown&Novak, 2007; Brown&Ratzkin, 2012; Brown&Novak-Leonard, 2013)
- 학교교육, 학업성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 프로그램은 읽기, 수학, 사회 등의 교과과정에 대한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이나 능력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성취도가 올라가는 긍정적 기능을 가져옴(양혜원·김현경·윤지연, 2019)
- 사회적 포용, 시민의식, 결속력: 예술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기여를 하는 확률이 높으며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예술이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공동체·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존재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지역 이미지, 정체성: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지역별 차이에 대한 것을 의미함(박신의, 2014)

3) 경제적 측면

- 예술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도효과를 아우르는 모든 경제에 기여하는 항목을 의미¹⁵⁾하며,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은 다음의 것이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지역경제: 경제적 직접효과의 일환으로 뛰어난 예술은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됨
 - 문화산업, 고용효과: 문화예술작품, 문화산업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을 통한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효과가 존재함
 - 사회적 비용: 예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개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감소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정부재정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됨
- 예술활동의 가치를 살펴본 후, 이들 간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2]로 간략화할 수 있음



[그림 2-2] 예술의 가치 간 포함관계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32쪽.



-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술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영향을 심리적/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음. 예술의 도구적 영향 중 사회적 가치는 다시 개인/공동체 및 사회/국가 단위로 나뉘어져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한 요인으로 추출되고 있음을 아래의 <표 2-1>을 통해 확인 가능함

<표 2-1> 대상에 따른 영향 요인 추출

	개인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에 미치는 영향
지표	- 몰입, 매혹, 심취, 집중, 중독 - 정신적 자극, 가치 - 감정적 공명, 느낌, 공감, 풍요 - 미적 성장, 창의적 자극, 미적 취향 - 학습, 사고, 도전 - 에너지, 긴장, 도피 - 호기심 개발 - 자기 표현, 자기 인식, 자아 - 인지적/지적 성장 - 웰빙 - 세계관	- 사회적 유대감, 교감 - 공통적 경험, 분위기 - 역사적 가치 - 사회적 연결 - 사회적 판단 - 사회적 이익 - 학교교과, 학업 성취도 - 사회적 포용, 시민의식 - 사회적 비용의 절감	- 고용창출 - 창의/문화산업 - 국가/지역경제 - 국가적 자부심, 국가브랜드

- <표 2-1>에 분류된 영향 요인 중에서 측정이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표 2-2>의 내용과 같음. 특히 개인 차원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많았는데, 이는 주관적·정성적인 평가로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공동체/사회/지역과 관련된 지표들은 중요성에 비해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많이 추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예술활동을 통한 영향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 단위로 더 작게 쪼개서 측정하는 것이 신뢰도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됨



<표 2-2> 예술의 가치 중 평가 가능 속성

	개인	공동체/지역	예술가	지원기관
평가 특성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객관적
선행연구로 도출된 평가가능한 속성	- 관람/방문횟수 - 감정 치유 (우울증, 불안감 등) - 건강향상 - 창의적 관심 - 이해력, 문해력 증가 - 학업성취도 증가	- 지역 정체성 인지 향상 - 지역사회활동 - 참여도 증가 (자원봉사 등)	- 자기발전 - 창의성 증진 - 네트워크 확대 - 예술적 우수성 향상	- 참여자(수혜자) 수 - 공연횟수 - 참여 예술인 수 - 프로그램 수 - 운영수익 - 고용/생산유발효과
평가지표 활용가능한 항목	- 관람/방문횟수 - 몰입도(심취도) 여부 - 감동 여부	-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 - 감동 여부	- 예술적 우수성(등급) - 예술가의 자아 발전(등급) - 새로운 형식/프로그램 - 개발(혁신성) - 유대감 -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 - 현장성(시의성)	- 예술적 우수성(등급) -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 - 몰입도(심취도) 여부 - 현장성(시의성)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가능한 지표로 추출된 내용을 다시 예술의 활용과 대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예술의 활용은 다시 본질적 그리고 도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질적이란 예술 장르 본연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구적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즉 예술 장르를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함

- 수용의 대상은 예술활동을 수용하는 대상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과 공동체 또는 사회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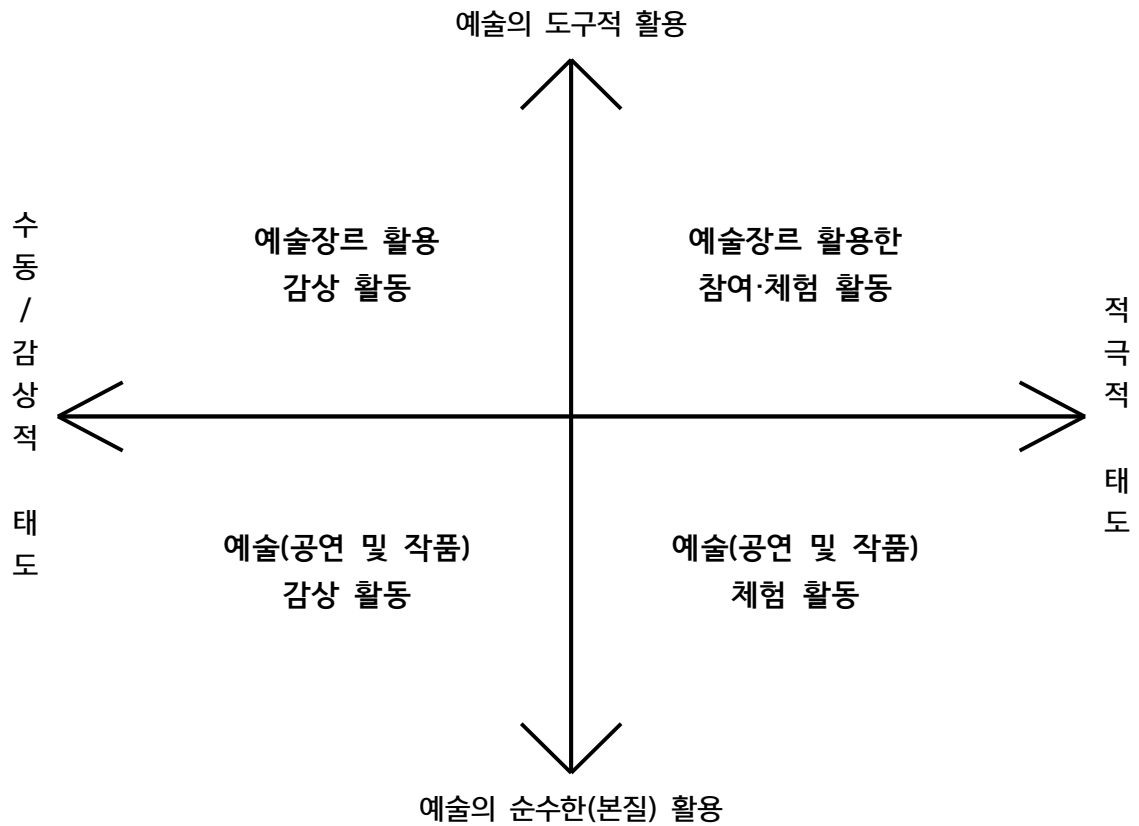
○ 즉, 예술가가 예술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표 2-3>의 지표를 활용하면, 예술가 스스로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쉽게 인식하고 지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략하지만 효과적인 매트릭스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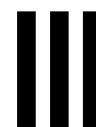
<표 2-3> 예술의 사회적 가치 지표 구분 매트릭스

예술의 활용	본질적	몰입/매혹/가치 정신적 자극/공감 미적 취향/미적 성장 호기심 개발 자기 인식/자기 표현	공통적 경험/역사적 가치
	도구적	학습/자기표현 공감/집중/감정적 공명 창의적 자극/사고 학습/도전/호기심 개발 지적 성장	학업 성취도/사회적 판단 사회적 연결/ 사회적 유대감 시민의식/사회적 포용 사회비용 절감
		개인	공동체
		수용의 대상	

- <표 2-3>에서처럼 4가지 영역의 요인들을 예술가들의 활동에 적용한다면 [그림 2-3]의 4개 영역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예술의 활용은 사회적 가치의 발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수용대상은 개인/공동체를 묶어 그들의 역할을 기준으로 수동적 감상과 적극적 참여의 두 축으로 구성함
- I 분면의 예술의 도구적 활용+적극적 태도는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표현의 방식으로 관객들의 적극적인 체험이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의미함
 - II 분면의 적극적 태도+예술의 순수한(본질) 활용은 예술장르 자체의 공연이나 전시에 관객들의 체험활동을 가미하는 예술활동을 의미함
 - III 분면은 예술의 순수한 활용+수동/감상적 태도를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감상활동을 의미함
 - IV 분면은 수동/감상적 태도+예술의 도구적 활용으로 예술장르를 토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관객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형태의 활동을 뜻함



[그림 2-3] 예술의 사회적 가치 분류 매트릭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사례연구



1절.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사례

-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공공 영역은 예술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서의 예술의 가치를 활용 또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민간에서는 예술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의 논의가 주된 흐름을 차지하고 있었음
- 국외나 국내의 공공 분야는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예술의 가치 확산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확산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진행함
- 민간 분야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은 예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예술 가치의 속해 있는 사회적 가치, 그 안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의 공공영역에서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연구의 전반에 걸쳐서 각종 연구보고서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챕터는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활동과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1. 공공 영역

1) 기획재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 2018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자료를 제작하여 사회적 가치의 발현을 위하여 해당되는 12개의 범위를 제시하였음
- 12개의 범위에는 ① 인권의 보호, ②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 ③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④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⑤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⑥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⑦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⑧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⑨ 이익의 지역순환, 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⑫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⑬ 기타가 포함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 논의는 대표적으로 UN, EU, 영국의 예를 들 수 있음



- UN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을 설정하고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17개의 가치를 목표로 제시
- EU의 사회적 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은 공공조달 시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조달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려하는 법률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물품판로 촉진법」이 제정되어 있음
- 민간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거나 공유가치창출(CSV)활동 강화 체계화 노력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기재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중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의 공공기관 부분에서 업무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비전을 기반으로 전략체계를 마련하고 실현과제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이중 일부가 예술의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어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34호로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영향평가 의무화가 전제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
- 문화영향평가는 대규모 도시재생 개발사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예측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대상과 유형, 평가절차, 평가체계, 지표체계와 방법론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화기본법」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진행 중임



- 문화영향평가는 문체부가 관장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같이 중요한 대규모 사업에 문화영향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의 세 가지 평가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의 하위에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임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인 2017-19년에 선임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6기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의 가치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여 활동 중임
-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는 예술가들의 활동 결과물이 어떠한 기준이나 지표에 따라서 예술의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논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되었음
- 예술의 가치를 예술가의 언어로 치환하여, 예술가들이 하는 지금의 활동도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자 함. 예술의 가치 확산이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을 나열한 후, 그것이 예술활동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활동이 곧 가치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차원으로의 변환을 의도하고 있음

4) 소결

- 우리나라에서의 예술의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지만,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한국 사회 내에서 예술의 가치 자체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조차 정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더욱이 기재부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의 공공기관에 이를



실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지향해야 할 문체부에서는 담론에 대한 논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음

2. 민간 영역

1) SK 사회적가치연구원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화두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음
 - 앞 부분에서 살펴본 기재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현 정부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핵심적인 정책의 이슈로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SK는 사회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8년 150억원을 출자하여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을 설립함
 - SK의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민간 분야 연구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SK는 2015년부터 사회성과 인센티브(SPC)를 시행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을 활용한 보상제도를 실시함. 이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경제적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8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총 1078억원이었음
 -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중임
- 2017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외 20인)은 ‘사회적가치실현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포괄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민간 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재정·금융·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소결

-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학교·학술 분야 지원, 문화예술체육의 순임
 - 특히 아동·청소년 계층을 위한 활동이 증가 중인데, 이러한 활동은 집단예술, 음악교육, 아동연극, 영화제작 등 예술 장르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존의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이 기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 채용, 봉사활동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기업이 점차 증가 중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음
- 특히 메세나 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고전적인 지원 분야를 넘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예술 등으로 그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임



2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활동 사례

1. 예술장르 활용한 참여·체험 활동

1) 독일_피나 바우쉬 재단 융 운트 라우트(jung&laut), 넬켄라인(Nelken-Line) 프로젝트

- 독일의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은 세계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아들 잘로몬 바우쉬가 2009년 설립한 단체로 피나 바우쉬의 업적을 보존하고 그녀의 생전 작품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 및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그 밖에도 정부, 지자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원 프로젝트와 공연을 기획하고 지원함
- 피나 바우쉬 재단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융 운트 라우트(jung&laut)’, ‘넬켄라인(Nelken-Line)’이 있음
- ‘융 운트 라우트’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모인 대상자를 위해 진행되는 탄츠테아터(tanztheater, 무용극) 필름 프로젝트이며, 참여하는 대상자는 무용 및 연극에 대한 경험 이 없는 난민 청소년, 이민자 등 14세에서 16세에 속하는 청소년 18명 정도의 인원로 구성됨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움직임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피나 바우쉬 재단은 예술성이 높은 참여인력과 음악·무대·복장을 비롯한 수준 높은 공연 환경 등 전문적인 구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뿐 아니라 마지막 회기에 진행되는 최종 공연의 질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씀
 - 영화감독과 함께 프로젝트를 촬영하는 영화팀과 안무가와 함께 공연에 오르는 연극팀으로 나뉘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며, 영화감독과 안무가는 성별 및 국적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전문가가 참여자와 다른 언어 사용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움직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각 영화팀과 연극팀은 같은 건물의 위, 아래층을 사용하여 각자 연습한 부분을 수시로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결과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 결론적으로 ‘웅 운트 라우트’는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닌 청소년들이 전문성을 띤 예술가와 그에 따른 좋은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는 것임. ‘왜 나는 움직이는가?’ 보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며,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여 함께 일하고 서로 관찰하며 청소년과 예술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넬켄라인(Nelken-Line)’ 프로젝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동작 중 한 부분인 ‘넬켄라인’ 동작을 익히는 프로젝트임

-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표현한 통합적이고 원천적인 터칭, 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피나 바우쉬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프로젝트의 목표는 피나바우쉬의 좋은 움직임을 함께 나누고 움직이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넬켄라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3-1] 독일 피나 바우쉬 재단-웅 운트 라우트, 넬켄라인 프로젝트]

출처: 피나 바우쉬 재단 www.pinabausch.org

2) 영국_체인지 컬렉티브(the Change Collective)

- 영국에서 사회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인 ‘체인지 컬렉티브’는 주로 소외되거나 위험에 처한 이들인 청년, 난민, 범죄자 등과 작업하며 연극, 무용, 문학 등의 예술장르를 활용하여 이들의 태도나 사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예술 워크숍을 통해서 연극을 만들거나 춤을 추고, 창의적인 글쓰기의 방식으로 청년, 미혼모, 재소자, 노숙인 등의 이야기를 소재로 생활 속의 문제점들을 관객들과 나누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유함



“We’re a group of highly experienced arts practitioners, working across sectors and with different disciplines, connected through a belief that the arts can be transformative”

the Change Collective Homepage



[그림 3-2] 영국 체인지 컬렉티브 덴 보인든 활동 프로젝트]

출처: Theatre of oppressed <https://www.tonyc.nyc/>
Cardboard Citizens <https://www.cardboardcitizens.org.uk/>

3) 서울문화재단_서울예술치유허브

-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성북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2010년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개관 후 2016년 ‘서울예술치유허브’로 이름을 변경하여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치유공간으로 거듭남
- 연극·무용·미술·음악·인문 상담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치유 전문가가 함께하는 예술 치유 특화 콘텐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삶의 고단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위로와 재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함
-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가/단체 및 전문 예술치료사들의 창작과 치료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민들의 삶과 밀착된 예술,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 프로젝트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예술치유랩(LAB)>과 시각 장애인, 장애 자녀 양육 부모, 치매 노인 등 특수한 환경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로 힐링>, 치유를 주제로 창작을 하는 청년예술단체의 <서울청년예술단x서울예술치유허브> 등이 있음. 3개 분야에서 총 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사회적 예술치유랩 (LAB)〉: 사회적 위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예술치유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설됨. '유령의 질문(시각, 노란더미 운영)', '청소년메이커플레이랩(통합치료, 매일연구소 운영)', '토닥토닥바디퍼커션(음악, 바디퍼커션그룹녹록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하여 운영함
- 〈예술로 힐링〉: 개인의 심리와 정서적 치유와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마음낭독(무용, 통자루무용단 운영)', 장애인녀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안심해요, 토닥토닥(음악치료, 토닥토닥 운영)', 치매노인을 위한 '새로운 기억(무용, 아트엘 운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장가 프로젝트(다원, 보이스씨어터맘 MOM 소리 운영)'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함
- 〈서울청년예술단x서울예술치유허브〉: 청년예술단체의 고유한 예술작업을 바탕으로 특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로 영유아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허하라(음악, 북태와한군 운영)'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언제까지 정수기만 고집하실건가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탁수기가 제격이죠. 내 몸을 위한 선택 88 탁수기(다원, 몸의대화 운영)' 등을 구성함



[그림 3-3] 서울예술치유허브

출처 : 서울문화재단(<https://brunch.co.kr/@sfac/200>), 플래시안(www.clas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

3) 예비사회적기업_앨리스와토끼

- 예비사회적기업 ‘앨리스와토끼’는 아이들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창의력을 키우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업으로 2017년에 창립하여 2018년 4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상에 선정됨
- 앨리스와토끼는 소규모·장기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자존감과 기량을 이끌어 내고자하며 아이들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마

음껏 표출하도록 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

-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이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은 연극·동화책·미술을 활용하여 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특히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상대적으로 예술 참여 기회가 낮은 아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예술활동 전후 발달 및 성향 평가를 진행하는데, 실제 수업에 참여한 아동 중 발달지연 단계에 진입한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공격적 성향을 지닌 아이가 차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그림 3-4] 사회적기업 엘리스와 토끼

출처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73>

2. 예술(공연 및 작품) 체험 활동

1) 베네수엘라_엘 시스템마(EI Sistema)

- 엘 시스템마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재단으로 102개 청년 오케스트라와 55개 유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됨
- 엘 시스템마는 베네수엘라 주정부의 사회사업으로 음악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활시켜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 아이들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직업적·윤리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함
- 음악이 가진 우수성을 활용하여 인간 및 사회의 통합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 이를 통해 지역 사



회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도움을 줌

- 오케스트라라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개인·사회의 발전과 지적·영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함
- 엘 시스테마의 사회적 가치는 1975년 첫 해부터 베네수엘라 안팎에서의 예술적 현상과 음악 교육학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엘 시스테마 활동의 긍정적 가치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스코틀랜드 등 전세계로 바로 전파되었음
-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음악 기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 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소년·소녀들과 청소년들이 엘 시스테마 교육의 혜택을 받음. 음악에 동화되고, 예술적 학습을 즐기고, 클래식 및 대중음악 레퍼토리를 통해 교육 시스템에 포함되어 프로그램의 근본적 설립취지인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배우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의 빈곤, 문맹 퇴치, 사회적 소외 및 배제를 줄여 사회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재 배출: 구스타보 두다멜, 에릭손 루이스, 호엔 바스케스, L. 미겔 로하스, 에드워드 풀가르, 나탈리아 루이스 바사 등



[그림 3-5] 엘 시스테마(El Sistema)

출처: <http://fundamusical.org.ve>, 엘시스테마 다큐멘터리 스틸샷

2) 부산 영도구_대평동 ‘강강이에술마을’ 조성 사업

- 부산광역시 민선6기 공약사업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도구청, 영도문화원, 대평동마을회, 플랜비협동조합이 협업하여 진행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임

- 강강이예술마을은 조선소 침체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들에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하면서 풍부한 해양생활문화, 근대 조선산업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공간으로 재탄생함
- 영도도선복원 및 플로팅아트, 공공예술프로젝트, 마을박물관프로젝트, 문화사랑방 및 물양장살롱 개최, 마을공작소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전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한 지역 브랜드를 발굴,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리조선소가 있던 마을에서 문화예술인촌으로 변신한 부산 영도 강강이 예술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함
- 특히 강강이예술마을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신규 인력 양성에 공을 들여 도시문화 기획자 아카데미, 주민해설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0명에 이르는 지역 활동가를 양성했음. 더불어 문화사랑방에서는 주민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통해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을로 진화하였음



[그림 3-6] 강강이예술마을

출처: 강강이예술마을 홈페이지(<http://kangkangee.com>),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www.planbcoop.com/blog/project/

3. 예술(공연 및 작품) 감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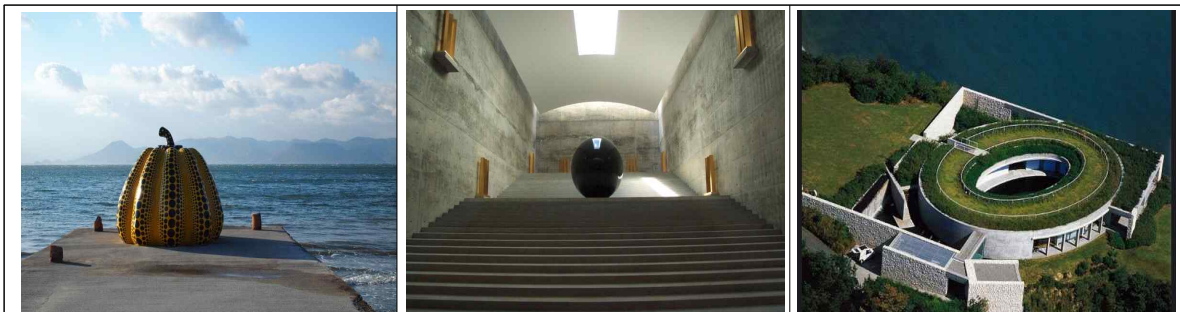
1) 일본_나오시마 ‘예술의 섬’

- 1917년 나오시마 북쪽에 미쓰비시사(社)가 중공업 단지를 세운 뒤 70여 년 간 구리 제련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으로 섬은 황폐해지고 이 때문에 60년대 후반 7800명이었던 인구는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3900여 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인구 공동화



현상을 겪은 이 섬은 1989년부터 시작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거쳐 현대건축과 현대미술의 메카로 다시 태어남

- 쇠퇴해가는 섬 지역을 예술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했던 프로젝트로, 건축과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여년 동안 미술관, 예술 프로젝트, 야외 작품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 나오히마는 일본 내 예술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발돋움함
- 섬 전체를 프로젝트로 상정하고 현대건축과 미술의 복합공간으로 만든 나오히마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예술과 지역의 상생 방안으로 손꼽힘
- 혼무라라는 오래된 마을의 구옥과 신사를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킨 아트하우스프로젝트와 호텔과 미술관이 결합된 베네세하우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장소를 콘셉트로 건축한 지추미술관이 대표적인 결과물임
 - 아트하우스프로젝트, 베네세하우스, 지추미술관의 세 가지 테마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현대인을 위한 감성의 공간으로 자리잡으며 예술과 자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을 지향함
 - 특히 아트하우스프로젝트(이에 프로젝트)는 섬에 사는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버려진 집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을 예술적으로 재탄생시킨 것임. 아트하우스프로젝트는 주민들이 떠나고 비어 폐허가 된 빈집과 염전 창고 등을 활용하여 갤러리로 만들거나 큐레이팅을 통해 마을 전체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등 예술 프로젝트로 사용 됨
-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쿠사마 야요이,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낙후되었던 섬이 가가와 현 35개 지자체 중 소득 1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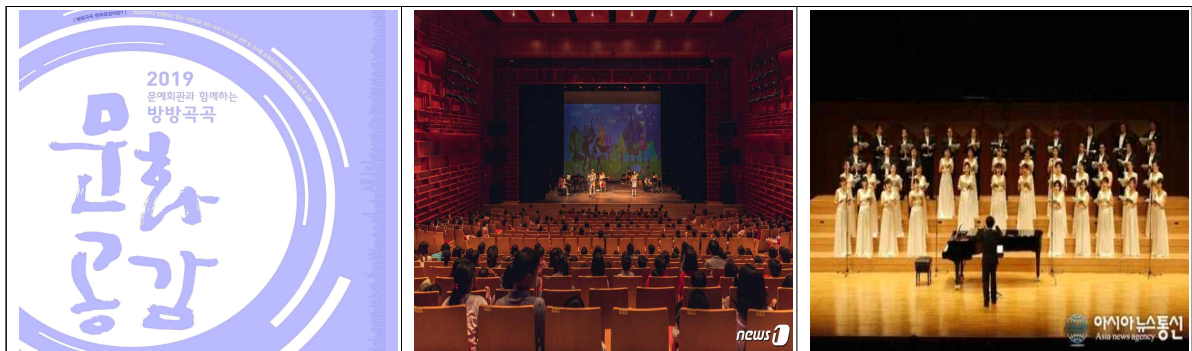
[그림 3-7] 일본 나오히마 '예술의 섬'

출처: 웹진 아르코(<http://www.arko.or.kr/home2005/bodo/sub/forest.jsp?idx=932&pid=917>)

2)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영L의 창작·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임
- 특히 국공립 예술단체나 민간단체의 우수공연 유통은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문예회관에서 유치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국공립예술단체의 전막공연 등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문예회관에서 유치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특별 기획프로그램을 기획·제작 운영



[그림 3-8] 방방곡곡 문화공감

출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https://www.kocaca.or.kr/>

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8&aid=0004234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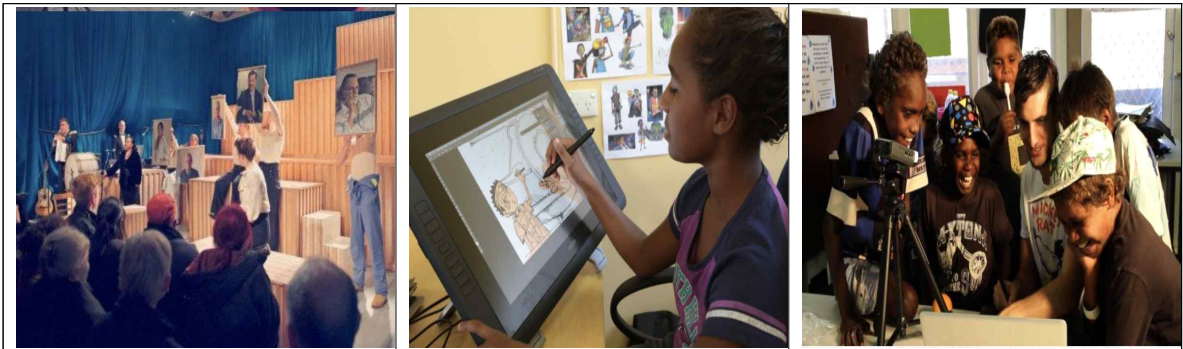
아시아뉴스 <https://www.anews.com/detail.php?number=559478&thread=09r02>



4. 예술장르 활용 감상 활동

1) 호주_BIGhART 이잘라 알라(Yijala Yala), 블루엔젤(Blue Angel) 프로젝트

- 호주 빅하트(BIGhART)는 혁신적인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로 협업 예술가들과 커뮤니티 문화개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1992년부터 진행 중임
- 이잘라 알라(Yijala Yala) 프로젝트는 호주 로번 지역 청소년과 노인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자 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임. 문화유산을 과거에 두지 않고, 현재로 가져와 미래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된 이잘라 알라 프로젝트는 음악, 무용, 연극, 디지털미디어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서 개발되었음
- 블루엔젤(Blue Angel)는 시드니, 멜버른, 호바트 및 국외 선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임. 특히 예술가와 해양산업 종사자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예 제도, 불법 조업, 조업원들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바다에서 일 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협과 공포 등을 다루는 작품을 제작하여 공연, 전시, 멀티미디어 등의 장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그림 3-9] 빅하트-이잘라 알라, 블루엔젤 프로젝트

출처 빅하트 홈페이지 www.bighart.org



3절. 아르코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사업 활동 사례

-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예술가들이 향후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함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사회가치 확산이라는 취지로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는 아르코가 수행 중인 <신나는 예술여행>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행 평가지표를 살펴보고,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가감해야 할 지표에 대한 제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예술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안해보고자 함

1.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개요

가. 사업유형 소개

1)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

- 지원대상을 생애주기별(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특수계층으로 세분화
- 순회시설 접수처와 예술단체의 상호 매칭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

<표 3-1>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매칭 프로그램 유형

유형	수혜대상
아동시설순회	·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 초등학교, 병원학교 등
청소년시설순회	·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시설 · 중·고등학교
장애인시설순회	·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 특수학교 등
노인시설순회	·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 노인요양병원 등



일반시설순회	· 임대아파트 · 산업시설, 다중집합시설 및 교통요지 등
특수계층시설순회	· 새터민관련 시설 · 교정시설, 군부대 · 의료시설 등

2)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

- 자발적 신청이 불가능한 수혜대상 직접 발굴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개발하여 순회활동 추진
- 지역 내 자생적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추구

<표 3-2>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 유형

사업유형	수혜대상
이웃사촌순회	· 농산어촌을 포함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문화예술 체험, 전시 등 ·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셔오는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 지역문화공간 등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도서지역순회	·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은 도서지역의 지역민 대상 연계 프로그램
문화올타리순회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일반예술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지역자원(지역기반 예술가 및 예술단체, 기획자, 향유자 등 네트워크)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발굴·제작 보급
문학순회	·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문학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대상으로 문학 향유 프로그램 운영

3)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 및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지역 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



<표 3-3> 신나는 예술여행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 지역구분

사업유형	프로그램 내용 및 수혜대상
수도권	· 지역기반 예술단체·청년예술가가 해당 지역 (소재지 기준) 내 문화소외계층 대상을 직접 발굴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소통·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문화소외계층(복지시설)을 포함한 일반국민(다중집합시설 등) 대상 가능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제주권	

- 〈신나는 예술여행〉의 세 가지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소외지역으로 특화된 장소를 찾아가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 특수계층 등과 만나 예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확장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신나는 예술여행> 평가 보완방안

- 〈신나는 예술여행〉의 평가는 현장평가위원과 관객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예술가들이 제출한 서면 계획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순화사업팀은 매년 평가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평가위원 위촉을 통해 세 개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음
- 〈표 3-4〉 예술가 항목을 살펴보면 평가의 주체가 예술가이긴 하지만, 평가항목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예술성과 관련 없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방향과는 맞지 않는 평가방식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예술가들이 가치 확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자신들의 활동이 가치 확산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의 평가방식과 지표는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4> 신나는 예술여행 현장 평가 지표

	개인/공동체/지역		예술가		지원기관	
평가 주체	관객		예술가		현장평가위원 평가모니터링 업체	
평가 항목	목표 달성도 (30)	관객 만족도(15) 순회처 만족도(15)	수행능력 (15)	예산변경여부(3) 일정변경여부(4) 계획의 일관성(3) 진행확인서 제출여부(5)	충실도 (40)	참여자와의 소통(10/등급) 관객특성 부합여부(10/등급) 사업계획과의 일치성(10/등급) 프로그램 우수성(10/등급)
			운영 및 진행 (5)	사전 홍보물 전달 사업목적과 배경 설명 배경지식/관람요령	인식확산 (10)	리플렛 배포 거치용 홍보물 배치 매체노출 종류/횟수(5)
평가 방법	설문조사		서면 현장		서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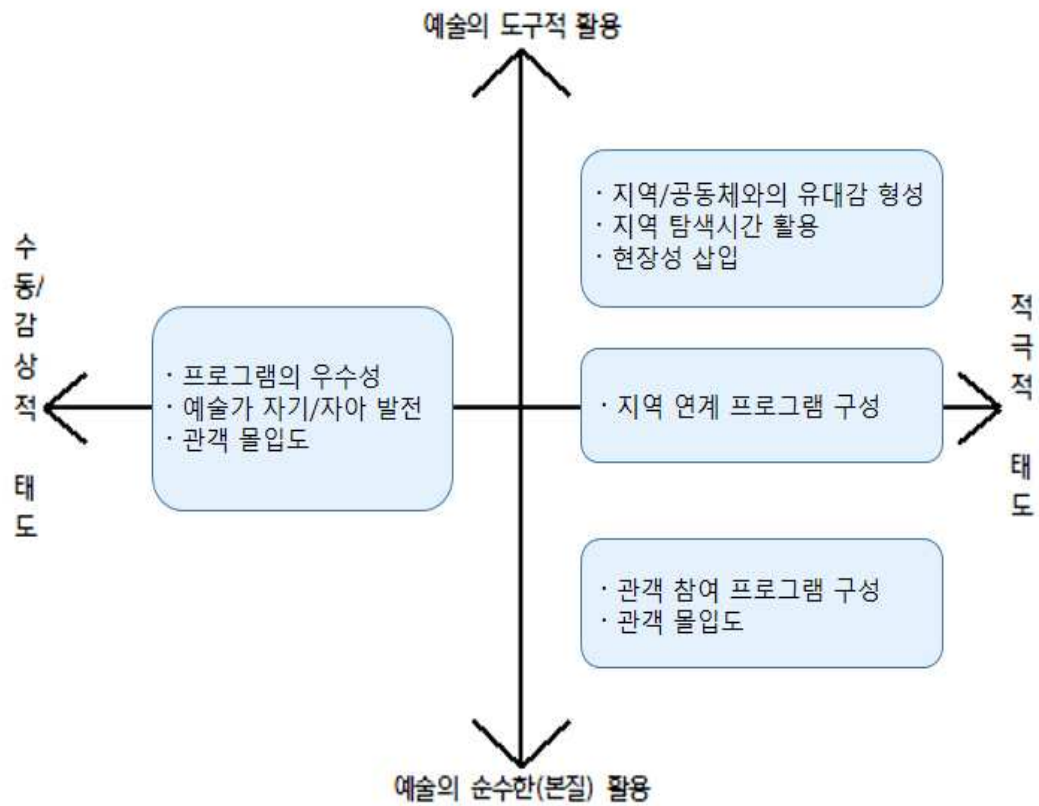


- [그림 2-3] 예술의 사회적 가치 분류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아르코의 <신나는 예술여행> 평가지표를 보완한다면 평면적인 현행 평가지표를 다면화해야 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현행 <신나는 예술여행>의 평가지표는 주로 예술가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수치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예술가의 활동에서 예술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술적 소양이나 작품 활동을 위한 예술활동에 관한 질문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중임
 - 특히 순회처 매칭과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은 공동체 및 사회 분야에 특화된 것을 의미하며, 예술 취약계층인 개인이 모여 있는 공간을 찾아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예술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38쪽의 <표 3-2>에서 강조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순회사업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관객 설문조사(대상자, 대상지역 등) 문항을 설계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와 어떠한 연계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관람객의 몰입도 경험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야 함
 - 즉, 정량지표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탈피하여 정성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예술가들의 자체평가에 포함하여 예술적 우수성, 예술가 자아 발전, 대상자 - 연계 지역과의 유대감 여부, 현장성(시의성)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변경 필요
 - 더불어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제대로 관객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원기관인 아르코에서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편의 상의 평가지표가 아닌 실제 순회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정성지표의 추가구성이 필요함. 특히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무리한 홍보를 요구하는 데이터 수집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 존재
- 이를 표로 삽입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음



<표 3-5> <신나는 예술여행> 평가 지표 보완 방안

	개인/공동체/지역		예술가		지원기관	
평가 주체	관객		예술가		현장평가위원 평가모니터링 업체	
평가 항목	목표 달성도 (30)	관객 만족도(15) 순회처 만족도(15)	수행능력 (15)	예산변경여부(3) 일정변경여부(4) 계획의 일관성(3) 진행확인서 제출여부(5)	총실도 (40)	참여자와의 소통(10/등급) 관객특성 부합여부(10/등급) 사업계획과의 일치성(10/등급) 프로그램 우수성(10/등급)
			운영 및 진행 (5)	사전 홍보물 전달 사업목적과 배경 설명 배경지식/관람요령	인식확산 (10)	리플렛 배포 거치용 홍보물 배치 매체노출 종류/횟수(5)
평가 방법	설문조사		서면 현장		서면 현장	
추가 항목	-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성 (수혜 대상자의 접근성 포함) - 만족도 지표에 관객 몰입도 추가 -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유형에 따라 맞춤형 설문조사 문항 재구성		- 프로그램의 예술적 우수성 - 예술가 자기/자아 발전 여부 -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구성 여부 - 대상자, 대상지역과의 유대감 형성 여부 - 현장성/시의성 적용 여부		-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예술가들에게 시간적 여유 지원 여부 - 현장성/시의성 판단 위한 지역 탐색 시간 활용 여부 - 인식확산 평가지표 축소 또는 삭제	



[그림 3-10] <신나는 예술여행> 보완 지표 포지셔닝

IV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언



1. 사회적 아젠다로의 전환

1) 사회적 이해 확산

- 예술 본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홍보를 진행해야 함. 예술가에 대한 공적지원은 예술이 가진 본연의 가치 및 교육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더 널리 전달하기 위함이며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예술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이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가치들은 예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의도한 교육적·경제적·사회적 효과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예술 자체가 가진 본질적·본연의 성격이 연관되어 있음
- 따라서 예술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결과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outcome)을 볼 수 있는, 예술가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영향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임
-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예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모토로 설정하고 있는 순회사업에 우선 적용해볼 수 있음
- 예술의 가치가 사회에 널리 경험되고, 공감되며, 나아가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아르코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와 실천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소위의 역할임을 고려하여 각 위원들의 시각과 제언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게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함

2) 학술적 논의

- 예술의 가치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임.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논의들 역시 예술, 사회, 가치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모호하기 때문에 예술가, 행정, 지원기관 간 의견 교환의 장이 필요함
- 예술과 사회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술의 가치라고 한다면, 각각의 영역이 어떤 범주까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예술계 내부나 문체부와 같이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등의 타 부처 등이 포함된 상위 의사결정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조직체가 필요함

3) 사례 공유

- 향후 확장된 차원에서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상적 수준에서부터 실질적인 사업이나 활동의 수준까지 다양한 영역과 활동을 포괄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영국 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대토론회를 진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술가치를 어젠다로 상정하여 문화예술 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학술적 데이터를 쌓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례를 입증하는 형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시상식을 진행하듯이, 사회적 가치 확산 인증 또는 시상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이러한 예술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붐업을 해야 함

2. 평가지표의 전환 필요

- 예술활동이 서비스업으로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지표를 세밀하게 구성해야 함. 특히 지역과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다면평가나 상호평가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가치 확산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새로이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하는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관평가 또는 사업의 평가 시, 전년 대비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비슷한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예술가와 단체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평가지표에서 드러난 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절적으로 평가지표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서 일부만을 수정하는 형태의 지표 개선은



오히려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행정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쉬우므로, 예술계의 목소리, 행정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평가지표를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이 예술의 가치 확산의 형태로 확장될 수 있으려면 좋은 공연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 하나,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술가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 [그림 2-3]의 4개 영역이 아르코의 〈신나는 예술여행〉 평가항목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구성안 변경이 요구됨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김정수(2017). 『문화행정론』, 집문당.
- 박미화(2016). 사회적 포용과 배제에 관한 연구: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신의(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1).
- 양혜원 외(2013).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 양혜원·김현경·윤지연(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엘리자베스 머피(1997). 『예술의 가치』. 예술인문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 오양열(2008).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종수(2008).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 정홍익 외(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ACE(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ACE.
- AHRC(2016).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 Culture*. AHRC
- Brown A. S. and Novak-Leonard J. L.(2007). *Assess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 live performance*, commissioned by 14 major university presenters.
- Brown A. S. and Novak-Leonard J. L.(2013). Measur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rts attendance, *Cultural Trends* 22:3-4, 223-233.
- Alan S. Brown & Jennifer L. Novak-Leonard (2013) Measuring the intrinsic impacts of arts attendance, *Cultural Trends*, 22:3-4, 223-233
- P. Brandwein(1985). *The Arts: Education for Leadership*.
- 네이버 두산대백과사전
- Dictionary.com

